**다시 가을,**

**또 노을,**

**여기 별**

(200자 원고지 80매)

**다시 가을, 또 노을, 여기 별**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며 연희의 손등에 자꾸 간지럼을 놓는다. 아빠의 손에 이끌리어 대롱대롱 매달리듯 걸어가는 아이는, 마냥 방긋거리며 이처럼 가까이에 스치는 꽃잎과 그 너머 노란 들판에 흐뭇하기만 하다. 그래 네가 뉘 딸인데 흐뭇하지 않을까.

  저만치 학교가 보이기 시작한다. 오랫동안 단층이었던 건물들은 한 층 더 올려져 무언가 현대적인 모양을 내고 있다.

“저기 아빠 학교다. 인제 나도 다닐래!”

“어허허. 그래. 연희도 아빠 학교에 다니면 좋지?”

“응”

35년 만이다. 내 삶의 첫 학교. 아이들 몇 명이 운동장 이 곳 저 곳을 종횡무진 뛰어다니고 있다. 어디서나 그렇듯 장난스러운 미소를 머금은 채 팔다리가 나날이 빨라지고 강해지는 것이 신기한 듯 시험해 보는 신나는 녀석들.

“안 녕.”

“안 녕.”

“니 여서 안 사냐?”

“응”

“그러믄 어서 사냐?”

“서울.”

“그먼 여그는 왜 있다냐?”

“음.. 나두 여기 학교 다닐 거야!”

곱상하게 생긴 녀석이 선뜻 다가와 연희에게 관심을 보인다.

“나 니가 좋다잉.”

국민학교 1학년 가을 운동회 날, 나는 처음으로 여자에게 애정 고백을 했다.

“히.”

참 예쁘던 짝꿍은 부끄러운지 미소만 지었다.

“오메! 이쁘장허게 생겼는디 겁나 씩씩허네. 난중에 둘이 연애할랑갑네요. 허허”

“둘이만 좋다믄 결홉시켜붑시다. 하하”

올해 팔순이 되신 어머니가 그 땐 지금의 나보다 젊었다. 나의 어머니와 짝꿍의 어머니는 젊디젊은 미소로 아이들을 바라보며 일상의 끝없는 일들을 잠시 내려놓았다. 아마도 저쪽 교정 귀퉁이였으리라. 밤늦도록 찬합 가득 김밥을 싸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어머니는 막내아들 운동회에 오신 거다.

“아빠. 배고파”

“그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연희야, 뭐 먹고 싶어?”

“짜장면”

  자주 먹는 음식이건마는 오늘도 짜장 한 그릇 앞에서 연희는 들뜬다. 나도 덩달아 연희와 함께라면 외식을 하는 것이 신나기는 하다. 한참을 둘이 짜장면을 먹다 보면 아이의 얼굴엔, 미처 그 작은 입으로 들어가지 못한 면과 양념소스가 아프리카 부족민의 요란한 분장처럼 칠해져 있다. 그럴 땐 꼭 맛있게 여물을 먹던 귀엽고 측은하기도 하던 우리 집 송아지가 떠오른다.

  “흐흐. 연희 하얀 얼굴이 안보이네!”

  “응. 다시 하얘지면 돼.”

  식사를 마치자 연희는 자그만 손으로 슥삭슥삭 얼굴을 잘도 닦아낸다.

  “우와. 완전 뽀얗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마을들 사이를 이어주던 신작로에는 제법 많은 차들이 지나다닌다. 면 소재지를 벗어나니 길은 온통 논과 밭과 산으로 휘감기며 흘러 흘러  간다. 고개를 들지 않아도 펼쳐져 있는 하늘은 온통 들녘에 걸친 채, 따스한 햇살이 아빠와 딸을 살며시 보듬어 주고 있다. 학교에서 5분여 거리인 천동마을을 지나 20분쯤 되니 신작로 남쪽으로 천운산 비탈에 자리잡은 동암마을도 보인다.

  “아빠는 매일 이 길로 학교에 걸어갔다가 다시 집에도 걸어갔어.”

  “정말? 다리는 좀 아팠겠다. 그래도 기분은 좋았겠네.”

  우리 가족은 학교가 있는 면 소재지와 내가 살던 천운마을 중간쯤인 여기 동암으로 이사 오려 한다. 연희도 매일 걸으면서 길가의 꽃도 보고 들도 보며 계절 따라 변해 가는 자연을 느끼도록 해주고 싶다. 동암은 천운산에서 제일 가까운 마을이기도 하니, 나와 아내는 등산과 산책을 맘껏 다닐 수도 있으리라.

저녁 9시쯤이었다. 달빛만 은은히 신작로를 비추고 아무런 불빛도 새어 들지 않는 까만 공간을 걷고 또 걸었다. 군 수학경시대회에 학년 대표로 뽑힌 나는 4학년 동생, 6학년 선배와 함께 수업이 파하고 몇 시간동안 평소 보도 못한 문제들을 풀고 선생님의 설명을 들었다. 다른 날은 그래도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집에 갔었는데, 대회가 며칠 앞으로 다가오자 조바심이 났던지 선생님은 밤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두셨다. 부면장 아들이었던 선배는 학교 근방 집으로 돌아갔고, 마침 같은 마을에 살던 여자 후배와 아무런 말도 없이 마을을 3개나 지나는 길을 걸었다. 생전 이리 늦게 마을 밖 아니 집 밖 몇 십 미터도 앞이 보이지 않는 밤에는 벗어나 본 적이 없었다. 신작로 길이라 들짐승은 나타나지 않겠지만, 내 발조차도 가늠이 되지 않는다. 바라보기만 하던 까만 어둠 속에 들어와 있으니 그저 무섭다. 같이 걷는지도 잘 모르게 옆에 여자 후배도 아무 말 없이 걷는다. 어떤 말도 나오지 않는다. 그저 둘은 멀디 먼 조각달에서 어스레하게 새어 나오는 빛을 의지해 최대한 빨리 걷는다. 달빛이 좀 더 밝았다면 뛰었을 테지만 그저 찬찬히 걸을 수밖에 없다. 다른 날보다 배나 걸려 까마득하게 느껴지던 길을 드디어 끝마치기 직전이다. 눈앞에 우리 마을의 집들에서 환히 새어나오는 불빛들이 보인다. 후다닥 방문을 열고 들어선 나는 밭일로 피곤해 코를 골며 주무시던 어머니의 품으로 쏙 들어갔다. 이제 안심해도 좋다. 이제 어둠은 없다.

  고향마을 입구에 드디어 도착이다. 신작로 북쪽으로 계속되던 야트막한 산이 끝나고 첫 번째 집이 보인다. 특이하게 이 집과 산 사이에는 집보다 조금 큰 둥근 모양의 바위가 떡 버티고 있다. 언뜻 보면 한팔 거리쯤 떨어진 집으로 언제라도 굴러 내릴 듯 보이지만, 찬찬히 살피면 산이 끝나려는 위치에 놓여 있어 그렇게 보일 뿐이다. 이 집에 아직도 혁이가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직접 보기 전엔 잘 믿지 못하겠다. 저 바위처럼 말이다. 마을 남쪽을 흐르는 개울 너머 너른 공터에는 탄광 막장 갱도를 받쳐 줄 소나무들을 쌓아 놓은 더미들이 보인다. 예전보다는 비할 데 없이 나무더미들이 초라하다.

  수십 년을 막장에 들어가 탄을 캐고, 나중엔 막장 궤도차 레일을 조종하는 일을 하시다 아버지는 정년퇴직하셨다. 큰아버지와 작은 아버지도 막장에서 탄을 캐셨다. 그 때는 이 근방 마을들에서 가장 수입도 좋고 일자리도 많던 직장이라 주민들 절반 이상은 광업소 일로 생계를 꾸려 갔을 정도였다.

  몇 걸음 걷지 않아, 우리 집과 지척에 있어 매일 서로 호출되던 영철이네 집이 보이고, 신작로 건너편에는 건물은 어데 갔는지 광업소 간이병원의 빈 터만 보인다. 마을 중앙에 있던 간이병원 앞마당은 온 동네 아이들이 한꺼번에 모여 전쟁하듯 놀던 장소였다.

  벌써 잠든 것처럼 고요한 아버지 얼굴을 잠시 바라다본다. 밤낮을 번갈아 탄광에 다니시던 아버지가 낮에 주무실 땐 나도 무척 조심스러웠다. 엄하셔서라기보다는 고단해보여서였다. 살금살금 까치발로 방문을 넘어 조용히 대문을 나선 후에야 나는 다시 신나는 녀석으로 돌아왔다.

  “영철아! 뭣허냐! 얼렁 나와!”

  영철이와 한달음에 뛰어간 병원 앞마당엔 벌써 예닐곱 명 정도는 슬슬 몸을 풀고 있다.

  “오메!”

  바로 눈앞에서 날아온 공에 명치를 맞자 숨을 쉴 수가 없다. 아이들 모두 순간 걱정스러운 얼굴이다. 하지만 내게는, 이러다 우리 편이 기가 꺾이면 지고 말겠다는 생각이 먼저 든다. 잠시 숨을 고르고 얼얼한 가슴팍이 조금 풀리자, 다시 눈에 힘을 주고 어깨를 펴본다.

  “참말로 괜찮으냐?”

  “배 안 아프냐?”

  아이들이 제각각 떠들기 시작하면 목소리를 높여야 정리가 된다.

  “아따 괜찮당께로! 여서 다시 차라.”

  아이들은 뛰어 다니고 부딪히며 다시 전쟁터로 돌아온다.

  “아빠!”

  연희가 내 팔을 흔든다.

  “어. 왜에?”

  “아빠. 오늘 자꾸 멍 때린단 말이야. 나 다리도 아프고 목말라.”

  “허허. 그랬니?”

  “아빠가 너무 오랜만에 와서, 많이 많이 생각나서 그래.”

  1분이 채 안 되는 거리에 추억들이 빼곡하다.

  신작로가 마을에서 거의 끝나 가며 마지막 골목이 보인다. 골목을 들어서 열 걸음이나 걸었을까? 벌써 문 앞이다. 내가 원한 것은 아니었지만, 11살에 이 문을 나섰고 다시 여기에 오는 동안 35년이 지났다. 대문은 여전히 철문 그대로다. 그러나 색깔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 지금처럼 파란색이었던 것도 같고 갈색이었던 것도 같고, 아니 그냥 아무 것도 칠하지 않은 철판뿐이었던가?

  “무슨 일이요?”

  지나던 아저씨가 물어본다.

  “안녕하세요. 집 좀 구경했습니다.”

  “긍께, 무슨 일인디요?”

  “네... 저는 이 집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래요? 이 집 식구들은 한 삼십년 전부텀 여기 살았다든디...”

  영 모르겠다는 듯 의심쩍다는 듯, 그런 표정이다.

  “제가 35년 전 11살 때 식구들 전부 서울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 집에서 한 이십년 살다가요.”

  “아하! 나는 이 동네로 이사 온지가 20년 됐지요. 잠깐만 있어 보쇼. 내가 이 집 할머니를 뎃구 올랑께.”

  아저씨는 잠시 어디론가 가더니 – 방향으로 봐서는 아마도 골목 아래편에 있는 밭들 중 하나일 것이다 - 할머니 한 분과 같이 온다.

  “아. 그 집 아들인갑소?” “얼굴이 똑 닮았구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여. 히.”

  지나온 소소한 사연들을 얘기하면서도 눈길은 얕은 담 위로 보이는 집안 곳곳에 머물게 된다. 감나무는 여전히 두 팔을 한껏 벌려 덩실덩실 춤을 추는 듯이 가지를 사방으로 뻗치고 있지만, 담벼락 너머 옆집으로는 더는 아무것도 뻗고 있지 않다. 담 너머 가지들에 난 감들은 담 너머 옆집에서 따먹고, 뭐 그런 식이었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기도 했었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쪽으로 난 줄기들은 여지없이 잘라 내졌나 보다.

  “오랜만에 고향집에 왔응께 한번 들어와 보시오.”

  할머니가 흔쾌히 우리를 받아들이시자, 나는 내 집인 양 냉큼 문을 열고 당당히 집안에 들어섰다.

  “누구시오?”

  안방 문을 열고서 할아버지가 멀뚱히 우리를 보시는 것이 낯선 이방인을 경계하는 기색이다.

  “있잖소. 우리한테 집 팔고 서울로 간 그 양반, 막내아들이라네요.”

  할아버지는 나와 연희의 얼굴을 훑어보시며 인물사전의 낡은 페이지들을 한동안 뒤적인다.

  “아. 글제. 눈이 거의 똑같고만. 허허. 손녀도 얼굴상이 똑 닮았어.”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 얼굴을 기억하시나 봅니다?”

  “글제. 아무리 한번 봤지만 집을 사고팔고 하는 판이라 서로 찬찬히 뜯어보게 되지요.”

  “아~항.”

  연희가 어른들의 자못 진지해지는 대화 사이로 가볍게 하품을 한다.

  “먼디 와서 힘들제? 아그가 다리도 아프겠구먼. 여 얼렁 앉아바라.”

  넷이서 사이좋게 걸터앉은 마루가 꽉 차 보인다.

  “이 집엔 두 분만 사시나 보네요?”

  “자식들 다 시집장가는 갔고 멀리들 살아 놔서 명절 아니믄 잘 못 들르지요.”

  이해한다는 말투지만 할머니의 표정엔 섭섭함과 그리움이 묻어난다. 몇 년을 함께 산 큰아버지 식구도 포함하면 한 때 10명도 넘게 함께 살았던 곳인데, 두 노인만 살기엔 너무 허전한 집일 것이다.

  “아따 동네에 귀헌 아가가 왔네. 어린 아가 동네에 귀허당께요. 이방허고 저 건넌방하고 둘 다 비었응께 하루 묵고 갈라면 그라시오”

  할머니가 부엌 곁방을 열어 보여 주시는데, 깨끗하게 정돈된 채 이불도 충분히 한구석에 마련되어 있다. 언제든 자식들과 손주들이 와도 편히 지낼 수 있을 것 같다. 가장 볕이 잘 들었던 이 방에서는 나의 할머니가 지내셨고, 건넌방은 중학교간 형들 이상이 쓰던 공부방 겸 실내 놀이터였다. 내가 태어나고 줄곧 부모님과 함께 지냈던 안방이 나는 특히나 궁금하다. 언제 또 이런 기회를 얻게 될지 기약 없는 터라, 염치없을지 모르나 안방 구경도 청해 봐야겠다.

  “어르신들. 제가 너무 오랜만이라... 안방에도 들어가 봐도 되겠습니까?”

  “어허. 글겠고만. 찬찬히 둘러보시오.”

  걱정과 달리 흔쾌히 안방까지 허락해 주시다니.. 등기소에서는 어림도 없겠지만,  추억이라는 내 지분이 여기서는 인정되는가 보다.

  아부지는 맨날 그라시듯이 서너 번은 수재로 국부텀 떠서 드신다. 엄마는 무시짐치 꽁다리, 실가리국 맨 밑에 남은 건데기들을 양푼그륵에 담긴 식은 밥 우에 올려놓고 맛나게도 묵는다. 성들과 나는 밥상 우에 젤로 귀헌 반찬인 고등어 꾼거 반토막만 눈에 아른거림서도, 고거 남은 양과 둘러 안근 식구들 남은 밥 양을 대충 저울질 해 보믄서 반찬들 사이로 저금질을 요리조리 해 나간다. 직금이 아니믄 또 백번은 넘게 밥상에 안거야 고등어나 갈치나 저 맛을 보겄지만, 우리집선 젓가락 열 맻 개가 상우로 돌아댕겨야 해서 내 욕심껏 저금질을 해불면 낭패가 되분다. 오랜만에 짭쪼름허고 고소허게 살살 녹아 부는 살집을 맛본 기뿜과 아숨을, 가득 부슨 숭늉 한 사발씩으로 녹여 불자, 또 금방 꺼져 불것지만, 다덜 뱃대지가 불뚝 튀어나와분다.

  “숙제는 다 해놨제?”

  엄마는 인자사 아적 국민학교에 댕기는 우리 둘 뱃대지 말고도 생각이 나는갑다.

  “학교 갔다 오믄 숙제부터 허고 논당께.”

  “나도 근당께.”

  국민학생인 성하고 나는 숙제가 밀리는 일은 아적 읎다. 빨래허고 밭일허고 헐 일 많아 심든 엄마 얼굴도 잠깐은 화색이 돈다. 자석은 많아도 다덜 지 헐 일은 알아서들 헌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안그라믄 아버지도 엄마도 우리들을 무신 수로 키워 나가건나! 나가 10살이지만 그런 생각이 든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인 성들은 공부를 허는지 걍 따로 있고 싶은 건지 건넌방에 가서 잠잠허다. 마당서 잠시 어슬렁거리던 나는 올해부텀 생긴 프로야구 경기가 시작헐 때가 되자마자 얼렁 안방으루 들가 아버지 한자리 비스듬 뒤짝에 앉아 티비를 보기 시작헌다. 낮허고 밤을 번갈라서 탄광에 일나가시고 집 안팎 고치는 일들이나 심 쓰는 일들을 허느라 아버지도 항상 바쁘다. 그래도 시간이 나는 대로 어려운 책들을 돋보기를 써감서 읽으시고, 혹가다 붓을 들어 나는 모를 한자들을 적곤 허는 선비같은 분이라 대허기 어렵기는 허지만, 또 다행히도 아버지는 권투, 씨름, 야구처럼 화끈헌 운동경기도 디게 좋아허신다. 그래서 내가 젤로 좋아허는 야구경기도 거의 다 볼 수 있고 아버지가 젤 좋아허는 권투중계를 봄서 묘허게 가슴 졸이며 통쾌허던 적도 많다. 건넌방엔 성들이 조그먼 글씨로 빼곡헌 책들을 보고 있을 거다. 저번에 성들 방에서 권투시합을 허다 친구의 운 좋은 주먹에 맞고 털썩 누웠다가, 같이 굴러 떨어진 책을 우연허게 펼쳐 보고선 맞았던 펀치만큼이나 아찔했던 기억이 난다. 숫자는 나도 알겄는디, 숫자 우에 밸난 표시를 디집어 씌우질 않나 숫자 사이에 꼬불꼬불헌 글자같은 거시 섞임서 ‘계산하시오’ 라고 허다니... 성들은 역시 대단허다.

  정재에선 엄마가 저녁 묵은 뒤치다꺼리를 마치고선 또 새벽에 일 나갈 아버지와 학교 갈 우리들 도시락 반찬을 챙겨 놓고 계신다. 이렇게 오늘 헐 일을 다 마치고 – 그래 봤자 잠깐이믄 끝나 부는 내게는 시시헌 숙제를 후딱 해 불고 토끼헌테 풀 뜯어다가 멕인 일 정도인디 – 세상서 젤 좋아허는 야구를 보고 있다니, 국민학생인 성과 나가 우리 집서 운이 젤 좋은갑다.

  “아이고. 입은 좀 다물고오. 얼굴만 티비로 점점 간다아.. 허허.”

  경기가 흥미를 더해 감에 따라 입은 점점 더 벌어져 불고 고개가 뒤로 제쳐져서 조만간 코메디프로에 나오는 바부 삼식이처럼 되부는 내 자세를, 아버지는 한 번씩 바루 잡아 주시곤 헌다. 안글믄 아마 올해쯤은 고개가 뒤로 접어븐 채 입을 벌리고 헤헤거리는 추잡시런 몰골로 돌아 댕기며, 마을 녀석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을지도 몰것다. 엄마는 어느새 정재일을 마쳤는지 방에 들어와, 아버지 작업복과 우리들 양말 빵꾸난 데를 째끔 째끔씩 꼬매고 계신다. 어쩌다봉께 9회 말 투아웃 역전 위기의 긴박헌 상황이 잘 마무리 되불고 승리의 안도감을 느끼는 동안, 엄마는 또 바늘을 들고선 꾸벅꾸벅 졸다가 앉은 채로 코까지 골고 있다. 손에 들고 있는 바늘이 찔러불 것 같아 불안허다.

  “엄마! 엄마아!”

  몇 번을 흔듬서 불러 부러야 들으실랑가 몰것다.

  “엄마. 누워서 자랑께. 인자 누워어.”

  “으... 응....그리여 알았다아... 커허...허...흐...윽..음”

  눈을 뜬 듯 만 듯 곤험서도 편안허기도 헌 어째 묘헌 표정으로 잠에 취했음서도 대답은 잘허신다. 엄마가 품에 안은 작업복과 양말이 급허게 대령해야 헐 것이라믄 졸다 깨어 꿰매다 밤 늦게까정 저러실 테고, 그나마 맻 일 여분이 있는 경우라믄 벽에 지대서 졸다가도 어느새 바닥에 누워 코를 한층 더 편허게 골며 주무실 테다. 내가 사실 둘 중 어느 편일지를 가늠할 요량은 아적 읎다. 엄마가 그저 꾸벅꾸벅 졸고 있는 듯해도 할 일은 다 알어서 잘 허신다. 그래도 바늘 끝이 어찌 될지는 모릉께, 엄마헌티 한 두 번은 말을 해놔야 내가 그나마 안심허고 잘 수 있다.

  “아빠!”

  연희가 내 팔이 아플 정도로 흔든다.

  “아빠. 나 목마르단 말이야!”

  “응..어.. 그래. 알았어. 음.. 아빠가 잠시 꿈을 꿨나보다. 미안해에. 허허.”

  그렇구나. 애지중지 키워 온 나의 외동딸 연희가 목 타는 줄을 계속 잊고 있었다.

  “추석에 만들어 논 건디 이거 먹을 줄 알라나?”

  할머니가 부엌에서 식혜 두 사발을 가득 담아 오셨다.

  “저 식혜 잘 먹어요. 밥알 동동동 뜬 거도 맛있어요.”

  “응. 그리여. 아그도 식혜 맛을 아는구만.”

  연희가 단숨에 식혜를 쭉 들이키더니 혓바닥으로 낼름거리며 밥알을 삼킨다. 목도 마르고 힘도 많이 들었구나.. 식혜가 목젖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 가니 마주보이는 천운산에 붉은 빛이 돋아 보인다. 시월이 저물어 가는 계절에도 해가 지려면 두어 시간은 남은 듯한데...

  “어르신. 마을 한 바퀴 휘 둘러보려는데 아이는 집에 좀 있어도 될까요?”

  좀처럼 남에게 청을 못하는 성미인 내가 그새 넉살이 많이 늘었나? 나는 오늘 우리에서 벗어나 야생으로 돌아온 한 마리 들짐승이라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걱정 마시오. 인자 설이나 돼야 손주들 볼까 눈에 삼삼허던 차인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별 일 없이도 수시로 방긋 방긋 웃는 연희를 보는 게 즐거운 듯하다.

  마을에서 천운산으로 가려면 꽤 넓은 개울 하나를 꼭 건너야 하는데, 늘 있던 돌다리가 보이지 않는다. 온통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어, 지나다 흘낏 보면 개울인지 풀밭인지도 모를 지경이다. 한 여름에 흐르는 물이 무섭게 불어나 돌다리가 잠길 때 으레 그랬듯이, 마을 끄트머리까지 올라가 시멘트 다리를 건넌다. 밭들을 지나 이제 산으로 들어가야 하지만, 입구를 찾지 못하겠다! 여름이면 마을 사람들이 계곡을 찾아 항상 가던 길이 보여야 하는데, 무성한 잡풀과 덤불만 산 주변을 가리니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겠다. 어찌되었든 산자락 주변만 맴돌 수는 없지 않은가? 주말이면 틈나는 대로 높은 산들을 오르지 않았던가? 양편에 가지런히 동여매 놓은 밧줄이나 하다못해 딛기 좋게 바닥이라도 골라낸 등산로만 거의 다녔지만 말이다. 나뭇가지를 들어 앞을 헤치며 조금씩 나아가 본다. 숲 안으로 꽤 들어서니 나무들이 더 늠름하고 멋지다.

  어느새 졸졸거리는 소리가 잠결인 듯 추억인 듯 들린다. 저 옆으로 십여 미터 들어간 쪽에서 옹달샘 물이 흘러내리고 있다. 언젠가 아버지가 라면을 끓여 주시던 장소가 여기였을까? 샘물을 한 움큼 마셔 흐릿해진 정신이 맑아지자, 샘이 흘러내리는 길이 두 갈래로 나뉘었다가 다시 합쳐지는게 보인다. 한쪽은 경사가 좀 급한데, 중간부터 물은 흐르지 않고 흙 위로 풀이 꽤 덮여 있다. 밑에 지하수맥이라도 발달했나? 처음 보는 광경이다.

  푸석푸석하게 느껴지는 흙을 밟으며 세 걸음 째 딛는 순간, 이상하게 발바닥이 너무 가볍다.

  “어이쿠야”

  갑자기 내 주변 땅이 몸뚱이보다 넓게 무너진다. 바로 옆 비탈 쪽에 보이는 어린 나뭇가지를 한껏 움켜쥐어도 본다. 하지만 뿌리가 겨우 두어 뼘 박혀 있던 차에 내가 벌인 사태로 지지하던 자리도 절반 이상 잃은 터라, 그도 나와 함께 발버둥치고 만다. 다리를 최대한 벌려 남아 있는 흙에 기대려 하지만 점점 발이 내려앉는다. 이제 허리마저 땅속으로 잠기고 있다. 이러다 땅속으로 완전히 빨려 들어가겠구나! 순간 눈앞에 두 손으로 겨우 감쌀 만큼 묵직해 보이는 돌덩어리 하나가 구세주처럼 딱 보인다. 있는 힘껏 두 다리를 벌려 나무 등걸인지 바위라도 있었던 건지 뭔가 묵직함이 느껴지는 힘을 반동삼아 돌을 향해 몸을 던진다. 돌을 꼭 움켜쥐자, 다행히도 비탈 아래로 데굴데굴 내가 굴러간다.

  “워메!”

  아래로 한참 구르다 보니 샘이 졸졸 흐르는 소리가 다시 귓가에 들린다. 이제 멈추는가? 갑자기 졸린다.

  “이보쇼. 이봐요오! 정신 차려 보쇼!”

  누군가 내 몸을 흔들고 뺨도 살짝 때린다. 눈을 뜨니 앞이 캄캄하다. 고개를 돌리자 웬 주민 한 사람이 눈을 크게 뜨고선 나를 보고 있다.

  “괜찮소?”

  “여긴 뭣허러 올라왔을까잉. 참...”

  한 모금 떠 주는 샘물을 마시고 저 위부터의 사태를 살펴본다. 무너진 흙더미 아래쪽으로 풀들이 온통 뭉개져 있고 땅도 좀 낮아진 것 같다. 함께 굴러 주었던 돌덩이엔 피가 묻어 있다. 시커먼 흙더미엔 내 얼굴이 반쯤 새겨져 있다. 사실 땅이 꺼질 때부터 지금까지 난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가슴이 아직도 마구 요동치는데 진정이 잘 안 된다.

  “머리 상처는 심하진 않구만요. 머리 말고 다친 덴 벨로 없는 거 같고.”

  의사처럼 주민은 능숙하게 내 몸을 여기저기 살피고 진단도 해준다.

  “산속이라 금방 어두워지니까 정신 차리고 일단 내리가 봅시다.”

  “꺼...”

  나도 머라 말하고 싶은 것 같은데 뭔지는 떠오르지가 않는다.

  혼자 올라왔던 산을 이곳을 잘 아는 주민과 내려가게 돼 마음이 좀 놓이긴 하다. 조심스레 경사진 곳을 내려오다 어느 정도 완만한 땅이 되니 긴장이 한층 풀린다.

  “이쪽은 여그 사는 사람들 아니면 제대로 된 길도 없고 위험한 지대라 올라오면 안되는디 말이요.”

  “위험하다니요?”

  “천운산 밑으로 벌써 한 80년 탄을 캤지요. 저어기 등산로 아니면 가다가 땅이 꺼질 수가 있응께 안위험허요! 혹 등산로 말고 댕기더라도 아는 길만 가야헌당께요.”

  주민이 답답하다는 듯 설명해주지만 이해가 영 안 간다. 이해하고 싶지도 않다.

  “내가 저 옹달샘 물맛 땜에 가끔 들러서 글제 아저씨 혼자 저서 기절해 있었으믄 어짤뻔 했소. 이런 덴 사람도 영 다닐 일이 없는데...”

  “흐음”

  천운산이 내려앉고 내 심장도 내려앉는다. 왜 내려앉는단 말인가? 멍청이처럼 걷다 보니 산자락을 벗어나 개울까지 왔다. 군데 군데 시멘트가 떨어져 나간 다리에 이르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만다. 주민이 뒤통수에 난 상처를 잠시 살피고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어 꾹꾹 눌러 준다.

  “인자 들가서 쉬면 될 거 같소.”

  자리를 털며 일어서는 것이 집에 가려나 보다.

  “고맙습니다. 저는 김영한이고 소띱니다. 이 마을에서 태어나 10년 살다가 5학년 때 서울로 전학을 갔지요.”

  고마운 것은 고마운 것인지라 예의로 내 정체를 자세히 밝혀 둔다.

  “...”

  주민이 아까 나처럼,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것처럼, 가만히 나를 보고 있다.

  “영한아!”

  “나 유혁이다!!”

  “...”

  혁이? 혁이? 유혁이? 바위?

  “유혁이? 혁이?”

  “그래 짜석아. 바위 아랫집 유혁이!”

  “ ”

  “ ”

  “워어메.”

  우리 둘은 서로를 쳐다보며 껄껄 웃다가 껴안다가 다시 웃고 만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노을이 더욱 붉게 타오르는 걸 바라보며 우리는 다시 다리에 걸터앉았다.

  “어쩐 일이냐?”

  “나 동암으로 이사 올라고 헌다. 서울 집하고 직장은 정리가 된 셈인께 한 달 후엔 이사 올 수 있을 거 같어.”

  “니는 이 동네서 쭉 살었냐?”

  “군대 갔다 오고 또 한 삼년 광주 나가서 살다 온 거 말고는 그 집에 쭉 살았제.  한창 젊을 때는 이 동네도 바위 아래인 집도 답답허기도 했는데... 헌디 지나고 나니깐 괜찮아지더라. 바위 땜에 산에서 흙이 무너져 내려올 걱정도 없는 거고.”

  “그리여. 나는 아파트도 복잡한 시내도 인자 도저히 못살것드라. 긍께 인자라도 이사 오는 거시여.”

  “넌 서울서 뭐 험서 살았냐?”

  “뭐 회사도 좀 다녔다가, 학원에서 물리 가르친 지 꽤 되았다.”

  “그냐. 난 탄광 통근버스 운전헌 지 10년 다 되간다. 첨에 막장에 들어가서 탄도 캐 봤는데 나는 몇 달 만에 못허겄드라. 울 아버지나 니 아버지는 으째 그 속에서 몇 십 년을 버텼는지 싶다. 휴~”

  따라 나오는 한숨을 참으며 개울가로 내려가 바지를 툭툭 털고 세수를 힘차게 해본다. 시커먼 물이 뚝뚝 떨어진다.

  “야 니 아까 얼굴 볼 때 탄광서 일하다 온 사람인줄 알았다. 하필 니 얼굴 처박은 데가 탄가루가 지하수에 섞여 올라서 쌓였나 보더랑께.”

  얼굴을 박박 문지르는 나를 보며 혁이가 씨익 웃으며 말한다.

  “긍께. 나도 인자 울 아버지마냥 탄 캐는 사람 같네. 허.”

  “근디 딸이 서울서 가깝게 학교 다니다 갑자기 동암까지 걸어 다닐라믄 힘들까 걱정이다.”

  “먼소리여? 영한아. 인자 시골동네도 스쿨버스 다 다닌단다. 우리 학교 다닐 때가 언젠디 그냐!”

  “그려?”

  그냐! 글쿠나.

  해가 다 넘어가는 마당이라 하늘에는 노을의 붉은 기운만 남아 어둠이 자못 짙게 드리워졌다. 얘기는 끝이 없이 이어질 듯한데, 집에서 기다릴 연희가 생각난다. 이제 한 달 후면 혁이도 실컷 보리라.

  “인자 우리도 들가보자. 더 있으믄 암것도 안보이것다. 이사 오믄 바로 들러라잉.”

  혁이도 낼 새벽 일 나갈 마음이 바빠 보이며 일어난다.

  “그 옷 나한테 주고 이거 입어라. 니 딸이 보믄 놀라겄다.”

  혁이가 배낭에서 주섬주섬 여벌 잠바를 내어 주는데, 마침 쌀쌀해진 저녁 날씨에 입기 좋아 보인다. 녀석 산탈라고 준비를 제대로 했구나.

  “고맙다야.”

  “근디 영한아. 너 아까 왜 밑에까정 굴러서 머리 깨지고 그래 부렀냐? 땅이 어른 가슴팍만치만 내리앉은 거라 걍 올라왔음 댔을 텐디?

  “그냐?? 글씨...”

  골이 띵하다. 생각하기도 싫다.

  “그려. 얼렁 들가서 푹 쉬어불어라.”

  “그려. 들가라잉.”

  다시 혼자서 골목길에 들어서는데 눈물이 찔끔 난다. 그래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했지. 그렇지 암 그렇지. 물리선생이 그걸 모른다 할 순 없지. 대문 앞에 이르러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마음도 가다듬는다. 연희의 아빠가 돌아오는 거니까.

  “아빠!!!”

  문을 열자마자 마루에 걸터앉아 있던 연희가 한달음에 달려와 와락 안긴다. 마당에 서 있는 할아버지도 짐짓 걱정했던 눈치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우연찮게 어릴 적 친구를 만났네요.”

  “해가 질라 허니까 아그가 아빠를 내동 기달리드만. 으짜든 밥 금방 차릴텡께 씻고 오시요.”

  할머니도 부엌에서 나와 내 잠바가 영 딴판이 된 것을 흘끔 보며 말씀하신다.

  할아버지, 할머니, 연희와 넷이 안방에서 도란도란 둘러앉아 칼칼한 김치찌개와 고소하고 짭쪼름한 꽁치구이를 먹었더니 이제 약간 기운이 난다. 예전 내 할머니가 쓰시던 방은 바른지 얼마 안돼 보이는 벽지의 종이냄새로 은은하다. 밤 9시가 넘어가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을 수 있을 만큼 세상이 조용하다. 연희도 나도 조금 심심하다. 연희와 밖에 나가서 코에 바람을 쐬어야겠다.

  널찍한 마당 둘레를 연희와 손을 잡고 천천히 걷는다. 고개를 살짝 들어 보면 별이 수도 없이 반짝인다. 곁을 돌아보자, 세상에서 가장 예쁜 별 두개가 새까만 하늘에서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고 있다. 서늘한 공기가 천운산 쪽으로부터 퍼져 온다. 하늘 위 별들은 변함이 없는 듯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고, 내 곁에는 투명한 눈망울을 반짝이며 해맑은 미소를 띤 천사도 함께 있다. 왜 이제야 돌아왔을까? 뭐라 말하고 싶지만 뚜렷이 떠오르지 않는다.

  “아~하~함”

  천사는 많이 피곤한가 보다. 나도 졸리기 시작한다.

  볼 위로 스멀스멀 간지럼이 밀려온다. 밝고 따스한 햇살이 온 몸 위로 쏟아진다. 눈을 떠 내 볼을 쓰다듬으며 웃고 있는 연희를 보니 나도 마냥 즐겁다.

  “아빠. 히”

  연희가 괜히 날 불러 본다. 자꾸 나도 웃게 된다.

  마주보이는 산은 수려한 선을 이루며 늠름하고 신비스러운 기운을 내뿜고 있다. 가을 천운산인데 오죽하겠는가? 벌써 해는 새파란 하늘 위로 꽤 올라와 있어 시원하면서도 따뜻하기도 한 공기가 마을 전체에 감돈다. 오늘 저 해가 저물 때가 되면,  감나무 가지에 걸려 서산으로 지는 노을은 또 내 맘까지 붉게 물들여 주겠구나. 그리고 이곳에 어둠이 완전히 자리 잡으면, 까마득히 먼 우주의 별들이 찾아와 무대를 빛내 주겠지. 다시 심장이 힘차게 뛴다. 어느 사이인지 모르게 많이 많이 변하기도 했다. 앞으로 무슨 일들이 일어날지도 나는 잘 모르겠다. 그래도, 이제라도, 다시 또 여기 고향에 있게 돼서 좋다. 어서 혁이와 탁주를 실컷 마시고 고향에 한껏 취하고 싶다.

                                                                           끝.